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또래,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김 만 지*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혼모 보호시설과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만14세-만28세 미혼모 1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만17세-만19세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등록상태는 중퇴가 47.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 요인은 성지식, 학대경험, 비행수준,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요인에서는 친구의 비행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이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중퇴와 학력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학교 중퇴, 친구의 비행, 성지식,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중퇴는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반 하여 미혼모의 이른 연령의 임신을 예방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접근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미혼모, 미혼모 임신 연령, 학교중퇴, 친구의 비행, 성지식, 진로결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I. 서론

임신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며 임신으로 인하여 한 여성은 엄마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일부 발달이론가들은 여자의 심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자아와 정체감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러한 임신을 위기의 시기라고 정의하였다(Furstenberg, F., Brooks-Gunn, J., & Chase-Lansdale, L., 1989).

실제로 미혼 여성이 임신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Kalil, A. & Kunz, J., 1999:197). 이러한 결과는 우리 인간이 환경속의 한 유기체임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미혼모의 상당수가 청소년임을 고려해 볼 때¹⁾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보여 진다.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불분명한 미래의 진로 및 경제적인 빈곤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Young, T. M., Martin, S. S., Young, M. E., & Ting, L., 2001:289) 이른 나이의 출산은 연이은 재임신의 높은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임신연령이 낮을수록 추후 출산터율이 짧은 아이를 출산할 높은 가능성(Gillmore, M. R., Lewis, S. T., & Lohr, M. J., 1997:536)은 이른 연령의 임신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하게 된 여성들은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학교 부적응, 가출 등과 같이 다양한 비행문제에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Spear, H. J., 1997). 미국의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통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13%가 임신을 하며 이 가운

1)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성경험율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8년 조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여고생이 0.8%이었고, 1984년 조사에서는 성경험자가 3.7%이었다(김기환, 1998:190 재인용). 1999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경험자가 9.8%로 나타나(한인영 외, 2000:87) 청소년의 성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행위는 임신과 연결되는데 1997년 조사에 의하면 여고생 중 임신경험자가 0.4%로 나타났으며(한국성문화연구소, 1997:41), 2000년 조사에서는 여중생 중 임신경험자가 4.4%로 나타났다(국무총리 산하청소년보호위원회, 2000:32).

데 21%가 재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Cynthia, 2000; 강영실, 2000,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 개입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미혼모의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및 특성

미혼모란 혼인전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혼인하지 않은 처녀로서(강간 등) 임신한 경우, 남편 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이혼했거나 과부가 아이를 갖는 상황에서 출산했을 경우(분만 후 6개월 미만)를 말한다(보건복지부, 1999:30). 법률상 미혼모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 즉 정당한 부부관계가 아닌 사통(私通)관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 처(妻)관계, 무효혼인(無效婚姻)관계 등에서 자를 분만하게 될 때 미혼모가 된다(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17). 한편, 고창현(1996)은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강간, 사통, 장래 혼인을 약속한 성관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남편의 사망, 부부 한쪽의 변심으로 혼인을 이루지 못한 사실혼 해소 등으로 끝내 법률상의 혼인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가진 여성을 미혼모라 하였다(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16).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률상 정의되는 미혼모와 흔히들 미혼모라고 칭하는 개념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법률상 정의되는 미혼모 개념에는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들은 제외되어 있고,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율이 높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가 어떠한지,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을 찾아와 상담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있을 뿐이므로 미혼모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한국여성개발원, 1984:21)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첫 경험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여긴다. 미혼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생물학적으로 아동기 시기가 출산 가능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있다. 둘째, 테티와 램(Teti, J. & Lamb, A.)은 청소년기의 발달론적 과업으로 정체감 형성, 자율성 형성, 성적 성숙, 이성애 또는 동성애 관계의 형성을 들었는데, 이 발달과업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혼모들의 경우 연령에 맞은 발달과업이 왜곡되게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인생주기에서 겪게 되는 과정이외의 발달단계를 겪는다. 셋째, 미혼모들이 갖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 신체적인 성숙은 이들이 성행동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준다. 인지행동이론가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왜곡된 믿음 때문에 미혼모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지 왜곡이 잘못된 결정과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의 행동은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시기이다. 마술적인 사고 과정은 “나에게는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같은 믿음을 유도한다. 청소년들은 그 무엇도 자신들을 이겨낼 수 없고 스스로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그들이 행동 결과로부터 제외되고 타인을 지배하는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믿게끔 유도한다. 남자들이 사춘기가 되어갈 때 그들은 남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적인 믿음이 발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초경을 하게 될 때, 성숙하고 출산 가능한 여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인지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미혼모들은 자신들이 출산 가능하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인지적 왜곡이나 사고의 오류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Webb, W., 1994; 김만지, 2000a:8, 재인용).

출산으로 인하여 미혼모들은 육체적 건강, 사회화, 지적 능력, 정서 발달 부문에서 어려움을 가진다. 미혼모는 동료로부터의 소외, 학교중퇴, 경제적인 어려움(Santelli, J. & Kirby, D., 1992:262) 및 재임신(Stevens-Simon, C., Dolgan, J. L., Kelly, L., & Singer, D., 1997:997)의 문제를 겪는다. 대체로 미혼모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낮은 기대(career aspiration)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학력과 고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업 분야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ord, C. W., Moore, K. A., Morrison, D. R. Brown, B., & Myers, D. E., 1992:310). 미혼모의 빈곤과 복지 상황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AFDC의 2/3 수혜자가 첫 아이를 출산한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와 빈곤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하였다(Nord, et al., 1992:310).

2.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들

실제로 많은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할 확률이 낮고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지, 2000b:249). 랄프 등(Ralph, A., 1984)은 임신하지 않은 10대와 비교해볼 때 임신한 10대 사이에서 교육적이고 직업적인 적응도가 낮으며 미래에

고위험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Young, T. M., Martin, S. S., Young, M. E., & Ting, L., 2001:289).

미혼모들은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고위험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비행행동들과 청소년 임신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ckaday, C. M., 1998:82). 대인관계에서 폭력 경험은 저소득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재임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원 가족의 폭력에 대한 스크리닝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Jacoby, M., Gorenflo, D., Black, E., Wudnerlich, C., & Eyler, A. E., 1999:318). 한편 한인영 외(2000)는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성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강영실(2000)이 실시한 만14세-만24세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이들은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지식을 정확하게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가까운 친구의 행동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연구에서 문제행동에의 또래 개입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Barrera, M., Jr., Biglan, A., Ary, D., & Li, Fuzhong, 2001:133). 바우만과 에넬트(Bauman, K. E. & Ennett, S. T., 1996)도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또래의 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서 자신과 행동면에서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정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Bauman & Ennett, 1996:185). 호퍼스와 헤이브스(Hofferth & Haves, 1987)는 자신의 동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자신의 동료집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다른 행동보다는 성행위와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동료압력에 더 예민한 것으로 밝혀졌다(Webb, 1994).

또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M. C., 1997). 학교와의 관계가 빈약할수록 이른 연령의 임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Spear, H. J., 1997)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보상과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숙한 성 활동과 자녀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elli, J. S.

& Beilensen, P., 1992). 청소년기 동안의 임신과 출산은 빈곤과 교육 포기
기로 연결되어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학교교육의 영역을 벗어나는 생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
한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임신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Nelson, 1997). 특히 낮은 교육적인 능력과 열망은 십대가 임신
하는 이유, 학교를 중퇴하는 이유와 관계가 높다(Hockaday, 1998:5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1년 10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의 미혼모보호시설
(서울, 대구, 춘천, 평택, 광주)과 천주교계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 1개
기관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01년 9월에 서울시 소재 O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7명
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지의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198명이었고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명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만14세-만28세 미혼모 192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
자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미혼모들이 보호받고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
루어진 의도적 표집방법을 택하였다.

2. 조사도구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며 또 진로선택 그리고 진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시포우, 카네이, 그리고 바락(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자(1993)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1개 모두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 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알파)는 .80이다.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실시한 설문지 가운데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직접 경험해 본 비행과 누구와 함께 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제시된 항목으로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절도나 돈 뺏기(뺑 뜯기), 패싸움이나 타인폭행, 약물경험 등이었다. 응답범주는 '한 적 없다', '주로 혼자서', '주로 여자들과', '주로 여자, 남자 함께'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알파)는 .81이다.

친구들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실시한 설문지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였다.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제시된 항목으로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절도나 돈 뺏기(뺑 뜯기), 패싸움이나 타인폭행, 약물경험 등이었다. 응답범주는 '없다', '1/4정도', '절반정도', '3/4정도', '거의 다' 등 5개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알파)는 .91이다.

조사대상자의 과거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스트라우스(Straus)가 개발한 갈등관리척도(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였다. 모두 8문항으로 0점부터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폭력 경험 신뢰도 계수(알파)는 각각 .71이다.

성지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지식 정도를 묻는 문항 중에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항목 3문항, 피임에 관한 항목 3문항, 성병에 관한 문항 2문항, 그리고 인공유산에 관한 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알파)는 .73이다.

이 밖에 조사대상자의 학력, 그리고 졸업, 재학, 중퇴로 등록 상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외에 연령, 생활정도,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 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단순적률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모 192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미혼모의 연령은 만17세-만19세가 38.6%, 만20세-만24세가 35.4%, 만14세-만16세가 16.1%, 만25세-만28세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등록상태는 중퇴가 47.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졸업 39.1%, 재학 13.5%로 나타났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으로는 혼자 산다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친부모 29.4%, 친모 15.8%, 친부와 계모 8.5%, 친부 6.8%, 친모와

계부 2.8%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점은 유의할 만하며, 반면에 친부모와의 거주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3가량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생활정도는 보통이다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잘 산다가 29.5%, 못 산다가 19.4%로 나타났다. 부학력은 중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와 고졸 또는 대학교 중퇴가 각각 2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가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은 고졸 또는 대학교 중퇴가 2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와 중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가 각각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류	내용	빈도(명)	백분율(%)
연령	만14세-만16세	31	16.1
	만17세-만19세	74	38.6
	만20세-만24세	68	35.4
	만25세-만28세	19	9.9
	전체	192	100.0
학교 등록 상태	졸업	67	39.1
	재학	23	13.5
	중퇴	81	47.4
	전체	192	100.0
지금 함께 사는 사람	친부모	52	29.4
	친모	28	15.8
	친부	12	6.8
	친부+계모	15	8.5
	친모+계부	5	2.8
	혼자	65	36.7
	전체	192	100.0
생활 정도	아주 잘 산다	6	3.2
	잘 산다	56	29.5
	보통이다	81	42.6
	못 산다	37	19.4
	아주 못 산다	10	5.3
	전체	192	100.0
부학력	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17	8.9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	40	20.8
	중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	45	23.4
	고졸 또는 대학교 중퇴	45	23.4
	대졸 또는 그 이상	17	8.9
	모른다	28	14.6
	전체	192	100.0
모학력	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23	12.2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	40	21.2
	중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	40	21.2
	고졸 또는 대학교 중퇴	49	25.8
	대졸 또는 그 이상	11	5.8
	모른다	26	13.8
	전체	192	100.0

2.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변인들과의 단순상관관계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변인과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 요인은 성지식, 학대경험, 비행수준,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의 비행수준이 $r=-.423$ 으로 개인 요인 가운데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지식, 학대 경험,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은 각각 $r=.238$, $r=-.170$, 그리고 $r=.211$ 로 강하지는 않지만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인에서는 모학력이 $r=-.134$ 로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강하지는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래 요인에서는 친구의 비행이 $r=-.469$ 로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의 비행은 조사대상자 개인의 비행보다도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중퇴가 $r=-.475$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중퇴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졸업은 $r=.556$ 으로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인		미혼모의 임신 연령
개인 요인	성지식	.238**
	학대 경험	-.170*
	비행수준	-.423**
	진로결정수준	.211**
가족 요인	모학력	-.134*
또래 요인	친구비행	-.469**
학교 요인	졸업	.556**
	중퇴	-.475**

*p<.05 **p<.01

3.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변인

앞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변수와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한 변인이 아닌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신 연령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측정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임신 연령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케 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예측변수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미혼모 임신 연령의 예측모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요인, 가족 요인, 또래 요인, 학교요인 전체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즉 조사대상자 자신의 학대 경험, 진로결정수준, 성지식, 나의 비행 경험, 모학력, 친구의 비행경험, 그리고 학교중퇴 변인들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한편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졸업 변인은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개인 요인에서는 성지식의 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요인에서는 친구의 비행이, 그리고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 중퇴가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지식의 수준이 낮고 친구의 비행 정도가 높고, 그리고 학교 중퇴를 한 경우에 임신 연령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변인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미치는 전체 설명력은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회귀분석결과

변인		임신 연령	
		Beta	SE
개인 요인	진로결정수준	.157*	.023
	성지식	.212**	.073
또래 요인	친구비행	-.287**	.028
학교 요인	학교중퇴	-.348***	.496
상수		17.815	
F값		18.111***	
R ²		.395	

*p<.05 **p<.01 ***p<.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혼모보호시설과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

반적 특징은 어떠하며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미혼모의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들은 만14세-만28세의 미혼모들로서 전국의 미혼모보호시설 6개 기관과 천주교계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보호 센터 1개 기관에 보호되어 있는 총 192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만17세-만19세인 10대 후반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만20세-만24세로 20대 초반이 35.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대 중반인 만14세-만16세가 16.1%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10대 중반이후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0대 임신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하는 X 및 N세대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이 부각된 1990년대에는 근대의 어느 시기보다도 10대의 임신이나 낙태, 미혼모, 그리고 입양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윤가현(2000)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조기 개입의 필요성(Dryfoos, J. G., 1990)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등록 상태를 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학교중퇴가 47.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졸업 39.1%, 재학 13.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혼모들의 경우 임신 전후로 학교를 중퇴한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체계 외부에 섹슈얼리티 관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의 임신 연령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인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순으로 살펴보면 학교중퇴, 친구의 비행경험, 성지식,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의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데 학교중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중퇴를 하였을수록 미혼모의 임신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의 임신과 출산이 교육 포기로 연결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

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의 영역을 벗어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이들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임신의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넬슨(Nelson, M. C., 1997)의 연구결과와 연결해서 고려해볼 때 학생 한 개인의 학업, 진로, 상담, 인성, 그리고 생활 지도를 병행하는 인간성장 서비스가 학교 체계 내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 Teen Outreach Program은 십대 임신을 감소시키고 학교 중퇴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Philliber, S. & Allen, J. P., 1992). 알렌 미어즈, 와싱턴, 그리고 웰쉬(Allen-Meares, P., Washington, R. O., & Welsh, B. L., 2000)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강조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알렌 미어즈 등(Allen-Meares, et al., 2000)은 교육이란 지식, 기술 습득, 그리고 사회화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교육 시스템의 최적의 목표가 가족, 직장, 공공생활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인간서비스기관으로서 학교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 욕구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인간 서비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실시할 필요가 있다(Allen-Meares, et al., 2000).

비행성향을 가진 또래집단의 영향은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행동의 또래 개입 관련성을 주장한 바레라, 비글랜, 애리, 그리고 리(Barrera, Biglan, Ary, & Li, 2001), 바우만과 에네트(Bauman & Ennett,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또래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손베리(Thornberry, A, 1995)는 한 가지의 특별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많은 고위험 청소년 하위집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으며 올렌디스크와 프린즈(Ollendisk, J & Prinz, M, 1995)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적으로 활발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하는 전략은 다음 세대로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Lanctot, N. & Smith, C. A., 2001).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에 성지식과 진로결정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지식의 습득 정도가 높을수록 임신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 연령의 임신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유아, 아동기부터 정확한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성관련 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학령기 청소년기임을 고려해볼 때 진로 관련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진로를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만지(2001)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진로관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미혼모의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 성행위와 임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을 근절하는 지역사회 개입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해서는 단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또래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진행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실(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3). 한국대학상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임상의사가 현장에서 인지하는 10대 임
신현황 및 예방대책 연구.
- 김기환(1998).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pp.187-211.
- 김만지(2000a).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0b).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
학연구, 제7권 제2호, pp.247-275.
- _____(2001). 청소년기 미혼모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관
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2호, pp.134-159.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1996). 한국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 윤가현(2000). 10대의 이성교제와 성생활. 2000년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85-97.
-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 태
조사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 한인영 외(2000). 십대임신예방을 위한 참여활동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공동연구.

- 헤림원(2004). 시설 이용자 현황. <http://www.haerimwon.or.kr>(2004. 10.15).
- Allen-Meares, P., Washington, R. O., & Welsh, B. L.(2000).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Third Edition, ALLYN AND BACON.
- Barrera, M., Jr., Biglan A., Ary D., & Li, Fuzhong.(2001). Replication of a problem behavior model in the american indian, hispanic, and caucasian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2), May, pp.133-157.
- Bauman, K. E., & Ennett, S. T.(1996). On the important of peer influence for adolescent drug use: Commonly neglected considerations, *Addiction*, 91, pp.185-198.
- Dryfoos, J. G.(1990). *Adolescents at Risks*, Oxford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Brooks-Gunn, J., & Chase-Lansdale, L.(1989), Teenage pregnancy and childbearing, *American Psychologist*, 44(2), pp.313-320.
- Gillmore, M. R., Lewis, S. T., & Lohr, M. J.(1997). Repeat Pregnancies Among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pp.536-550.
- Hockaday, C. M.(1998). *A prospective study of teen pregna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Jacoby, M., Gorenflo, D., Black, E., Wudnerlich, C., Eyler, A. E.(1999). Rapid repeat pregnancy and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violence among low-income adolescents, *Am J Prev Med.*, 16(4), pp.318-321.
- Kalil, A. & Kunz, J.(1999). First birth among unmarried adolescent girl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ocial Work Research*, 23(3), pp.197-208.
- Lanctot, N. & Smith, C. A.(2001).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deviance in a representative urban sample of african american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pp.349-372.

- Nelson, M. C.(1997). *Community and Media Influences on Adolescent Sexual Abstin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braska University.
- Nord, C. W., Moore, K. A., Morrison, D. R., Brown, B., & Myers, D. E.(1992). Consequences of Teen-Age Parenting, *Journal of School Health*, 62(7), pp.310-318.
- 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1976). A sample of educational-va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pp.233-243.
- Philliber, S., & Allen, J. P.(1992), Life options and community service: teen outreach program. In Miller, B. C., Card, J. J., Paikoff, R. L., & Peterson, J. L.(Eds.),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model programs and evaluations*.(pp.139-155),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antelli, J. & Beilensen, P.(1992). Risk factor for adolescent sexual behavior, fertilit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Journal of School Health*, 62, pp.271-279.
- Santelli, J. & Kirby, D.(1992). Adolescent sexuality: Pregnancy, sexuality transmitted disease, and prevention. *Journal of School Nursing*, 62(7), pp.262-267.
- Spear, H. J.(1997). *Teenage Pregnancy: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Females Who Attend an Alternative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University.
- Stevens-Simon, C., Dolgan, J. I., Kelly, L., & Singer, D.(1997). The effect of monetary incentives and peer support group on repeat adolescent pregnancies: A randomized trial of the dollar-a-day progr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27(12), pp.997-982.

Webb, W.(1994). Teen Sexuality: Empowering teens to decide, *Policy Studies Reviews*, Spring/Summer, 13:1/2, pp.127-139.

Young, T. M., Martin, S. S., Young, M. E., & Ting, L.(2001). Internal poverty and teen pregnancy, *ADOLESCENCE*, 36(142), pp.289-304.

ABSTRACT

A Study on the Causing the Age at Unwed Mother's Pregnancy

-Focused on the individual, peer, and school factors-

Kim, Man-Ji*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2) factors that correlates the age at unwed mother's pregnancy and (3) factors that predicts the age at unwed mother's pregnancy. This study uses the data based on surveys with 192 unwed mothers selected purposive sampling from the 6 unmarried mothers protective facilities in Seoul, Pyungtak, Chunchon, Taegu, Chungju, and Gwangju, and 1 unwed mother's shelter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38.6% was full 17~full 19 years old and 47.4% was school drop-out. Second, the age at unwed mother's pregnancy was statistical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buse experience, delinquency's experience, mother's school career, peer's delinquency, and school drop-out. And the age at unwed mother's pregnancy was statistical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xuality knowledge, career decision level, and graduate. Thir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actors with it were school drop-out, peer's delinquency, sexuality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Based on the result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unwed mothers, the age at unwed mothers's pregnancy, school drop-out, peer's delinquency, sexuality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투고일 : 10월 15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

* Ewha womans University